

「나는 친절한 죽음을 원한다」

3장 우리가 은폐해 왔던 이야기

4장 죽음의 문화를 위한 발걸음

책의 제목에서 말하고자 하는 친절한 죽음이란 무엇일까? 이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 독서 모임의 지향점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친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주어지도록 공론화하고 연대하는 것, 개인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한채로 삶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얻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한다

● 우리가 은폐해왔던 이야기

전통적 연대가치가 사라지고 각자도생의 개별화 사회에서 삶의 속도를 방해하는 죽음의 문제는 일상에서 병원으로 격리되고 소외되었다. 그리고 기술주의를 신봉하는 의료현장은 모든 기술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하여 연명의료에 몰두하게되었다

의학의 발전과 연명의료가 만들어낸 비극

1960년대 뇌사의 기준이 제시되기 전까지 심장의 박동이 멈추는 시점을 사망으로 판정해왔었다. 의학기술의 발전은 인공적인 기계장치를 통해 손상된 장기를 대체하여 생존을 가능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뇌가 손상되면 호흡과 심장이 멀어야 하는데 기계호흡장치로 뇌기능은 정지되었으나 심장은 뛰고 있는 ‘비가역적인 혼수’ 상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 뇌사와 장기이식 논쟁이 시작되었고 1999년 2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2000년 2월 시행안이 발표되면서 한국에서도 뇌사자의 장기이식이 합법화되었다.

한국에서 뇌사자와 중증환자 연명의료중단과 관련된 논쟁

1.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퇴원한 환자가 사망, 보호자와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 후 의료현장에서는 법적 처벌을 두려워하여 생명존중의 문제를 모든 기술을 동원한 연명의료가 최선의 의무가 됨

2. 1982년 권투선수 김득구의 죽음

당시 미국의 현행법상 뇌사판정과 장기기증 없이는 뇌사자의 기계호흡장치 제거가 불가해서 장기기증하게 되었다. 뇌사논쟁은 장기이식법의 도화선이

되었지만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드는 일은 안락사에 대한 우려와 장기이식에 덮여버렸다

1999년 2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정

※ 장기이식에 한해서만 뇌사자의 기계호흡장치 제거가능

3. 2008년 세브란스 김할머니 사건

연명의료 중단과 죽을 수 있는 권리와

치료행위에 있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우선하게됨

위의 세가지 사건은 한국사회에 죽음에 대해서 공론화할 기회였다. 식물인간상태에서 삶을 계속하는 것이 맞는건지, 환자의 고통을 연장하는 것이 치료인지, 가족의 의견보다는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우선 하는 것이 옳았는지에 대해서 공론화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고 더 나아가 안락사 등을 포함하여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지 못하고 제도와 규범에 맡겨버린 아쉬움이 있다.

연명의료결정법과 사전 의료 의향서의 탄생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 2016년 통과되고 2018년 2월 시행되면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통한 자기결정권, ‘임종과정’이라는 죽음의 범위 확장, 대안적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장려등 한국사회와 의료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

2016년 연명의료 결정법이 제정되면서 죽음과 관련된 용어 즉 임종과정,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말기환자, 연명의료 등의 개념이 정의되면서 죽음에 대한 소통의 기준점을 세웠다. 또 적극적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제안하고 있다.

● 죽음의 문화를 위한 발걸음

한국인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

-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집에서 맞이하는 죽음
- 고통없는 죽음
- 주변에 부담을 남기지 않는 죽음
- 행복한 삶을 살다 맞는 죽음

존엄한 죽음을 위한 노력

생명이 비극이 되지 않기위해

무의미한 생명은 없지만 무의미한 삶은 존재한다는 것에서 생명과 삶의 차이를 따져봐야 한다. 생명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목숨상태를 말한다. **인간의 고유한 가치는 목숨보다는 삶에 있다.** 완전한 삶이란 늙지도 죽지도 않는 삶이 아니라 주어진 목숨을 통해 최대한 성실하게 삶의 가능성에 도전하고 후회없이 존엄하게 퇴장하는 것이다. 좋은 죽음을 준비하고, 평화롭고 존엄한 죽음의 문화를 만들어야 내야 한다. 제도와 규범에 모든 것을 맡기지 말고 죽음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의미있는 삶과 품위있는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Q. 존엄한 죽음은 무엇일까?

Q. 나의 삶의 완성을 위하여 아름다운 마무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과제

지역기반의 생애말기 통합돌봄체계를 구축

공장식 수용을 벗어나 재택의료를 통한 익숙한 곳에서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Aging In Place)